

사설

자정 능력 사실상 상실, 대대적인 개편 필요하다

본지는 지난 1955호에서 ‘인권연대국은 입장을 재고해달라’라는 사실을 작성했다. 당시 인권연대국은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여에 관한 건을 부결시킨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반인권적이라 밝혔다. 본지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상정성과 대표성에 대해 인권연대국이 의견을 재고하길 간곡하게 부탁드렸다. 안타깝게도 자정의 가능성은 현재로서 적어 보인다.

지난 21일 인권연대국은 인권주간 ‘2022 고려대학교 인권주간: 시선’의 일부로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박경석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의 제고를 위한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초청한 강연자는 의문이 든다. 이대남을 혐오와 차별의 세대로 부르짖고, 장애인 인권과 무관한 극단적인 정치적 입장을 전장연의 이름으로 표명하는 박경석 대표가 대학생에게 강연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 할 수 없다.

이후 입장문에서 인권연대국은 ‘인권주 간에는 인권연대국 주최가 아닌 행사들도

열리나, 안내가 부실하였습니다’고 밝혔다. 그들의 주장은 다른 인권단체 주최로 해당 강연이 진행됐다는 말로 풀이된다. 다른 인권단체가 박경석 대표를 초청한 사실을 인권연대국이 몰랐다는 것인지,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나 확실한 것은 어느 쪽이든 인권연대국이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인권연대국이 몰랐다면 관리의 부실이며, 알고도 묵인했다면 논의의 부족이다. 결국 23일, 인권연대국은 ‘업무 진행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며 강연 취소를 알렸다.

사실상 인권연대국의 자정 능력은 상실된 상태로 해석된다. 학내에서 반대 여론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해당 강연이 불리일으킬 수 있는 파급 효과를 내부에서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충분한 내부 논의의 부족으로 인권연대국은 오히려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제고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자정은 이제 불가능하다.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권연대국 측은 학우들의 개편 요구 외침에 응해주길 바란다.

시론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9월은 독서문화진흥법이 정한 ‘독서의 달’이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가을에 1만 건에 가까운 독서 관련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린다고 한다. 이것만 보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독서 강국일 것 같지만 실상은 매우 초라하다.

글로벌 조사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가 2017년 조사한 ‘국제 독서 빈도 조사(Frequency of reading books in selected countries worldwide in 2017)’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주요 17개국 중 한국인의 독서 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한국인의 ‘매일 읽는다’ 응답 비중은 13%로 최하위였다. 30% 이상인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등과는 큰 차이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책(전자책 포함)을 ‘매일 읽는다’는 비율은 7% 수준으로 4년 전 국제 조사의 절반 수준으로 더 떨어졌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읽는다’는 비율(21%)까지 포함한 습관적 독서인구 비율도 30%가 되지 않는다. 그 대신 비독자, 즉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는

성인 인구가 52.5%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책을 읽지 않는 나라로 빠르게 후퇴하는 자화상이다.

독서율은 개인이나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이다. 책을 많이 읽는 개인이나 국가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10년 후를 생각해보자. 당연히 현격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성인 종합 독서율(1년에 종이책, 전자책, 웹소설, 오디오북을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은 47.5%에 그친다. 이에 비해 동일한 범주의 미국 성인 독서율은 75%로 종이책 65%, 전자책 30%, 오디오북 23%였다(2021년 2월 퓨리서치센터 조사).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인의 독서율은 계속 내리막길인 반면, 미국인의 종이책 독서율은 탄탄히 유지되는 가운데 전자책과 오디오북 이용률은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차이를 낳은 사회적 배경이다. 한국과 미국 모두 스마트폰이나 영상물 등 다매체 환경에 처해 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책을 읽는 데는 우리와 다른 사회적 독서 권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생활 가까이 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이 ‘도서관 마케팅’을 한다. 또한 미국 대학교서관들은 한국 대학교서관보다 3배 이상의 자료구입비를 지출한다. 이름난 대학일수록 단과대학 또는 학과 단위로 도서관이나 도서관이 있다. 서점 공간이 아닌 쇼핑물과 슈퍼마켓에서도 책을 판매한다. 오프라 윈프

리부터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명사들의 책 추천이 넘쳐난다. <뉴욕타임스 북리뷰> 등 언론과 서평지도 살아있다. 유튜브에서 책을 추천하는 북튜버 역시 흔하다. 전국의 소아과 병원 의사들이 매년 5세 미만 어린이 480만 명에게 ‘리치 아웃 앤 리드’(Reach Out and Read) 프로그램으로 그림책을 선물하며, 레지던트 의사들은 이에 필요한 실무 교육까지 받는다.

다시 말해 미국 사회는 책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다. 나이가 독서를 개인의 선택이나 기호의 영역으로 방치하지 않고 시민 사회의 중요한 권장 활동 대상으로 삼는다. 이것을 ‘사회적 북큐레이션’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제 우리도 책 읽기를 자극하고 독서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세련된 독서환경 조성과 정책이 필요하다. 독서의 열정이 사라진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읽기는 생각하기와 동의어다. 생각은 언어에 기반하는데, 가장 정선된 콘텐츠인 책만큼 생각을 잘하도록 돕는 도구는 없다. 독서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세상을 보는 일과 같다. 나를 키우는 지렛대, 상상력의 뿌리, 성장의 에너지가 책 읽기다. 온전히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독서다. 하루 30분씩 1년이면 적어도 20~30권의 교양서와 인문서를 너끈히 읽을 수 있다. 독서를 하루 일과의 루틴(의식적 노력을 통한 습관)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석탑추추

“일만 키우고 정작 하는 일은 없구나”

○… 지난 20일 인권연대국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초청 강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소.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를 반대하는 글로 도배됐다고. 한 호형은 “전장연 지하철 시위 때문에 학교에 늦은 경험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소. 이정도는 양반이요. 신문에 답을 수 없는 무서운 글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 지난 22일에는 인권연대국의 국장단 해임안건이 상정됐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및 중앙운영위원회와의 논의 없이 이뤄졌따며 ‘더 이상 인연국 국장단의 독단적 행보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소. 앞으로 있을 중비대위 정기회의와 국장단 회의에서 인연국 국장단의 거취가 결정되겠구려. 어쩌면 자진 사퇴가 먼저일 수도?

○… 지난 23일 결국 강연 취소 공지가 올라왔소. 인연국이 밝힌 이유는 ‘강연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네. 안내가 충분히 이뤄졌어도 온라인 커뮤니티 호형들은 어떻게든 반대했을 거요. 인연국은 이들을 감당할 용기 없이 사업을 진행하려 했던게야. 이에 한 호형 말하길 “일만 키우고 정작 하는 일은 없구나!” 쿼어퍼레이드 참여를 취소한 게 말 그대로 엇그제 같소.

○… 퍼레이드 참여 취소를 규탄하는 단체가 정후 등지에서 연서명을 받고 있더군. 임시중비대위 회의를 열기 위해 20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강연 취소 결정도 규탄하려면 200명의 사인을 더 받아야 할 것 같소. 모두 힘내시구려.

류요셉 취재2부장 sonador@

석탑만평

조은결 전문기자



고대신문사 The Korea University Weekly

1947년 11월 3일 창간	취재2부장	류요셉	총무국	02-3290-1682
주간	매주 월요일 발행	기획1부장	엄선영	인쇄 중앙일보
		기획2부장	윤혜정	홈페이지 www.kunews.ac.kr
발행인	정진택	사진부장	강동우	메일 press@kunews.ac.kr
편집인 겸 주간	김재환	미디어부장	김채연	페이스북 /kunews1947
			플러스친구	@고대신문
편집국장	이원호	편집국	02-3290-1683	주소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 108
취재1부장	김시현	세종 편집국	044-860-1888	청산MK문화관 6층

수레바퀴

3000자 이내로 소개하세요

수시 전형 원서 접수 기간이 지나갔다. 주변 수험생들의 분주한 모습을 보니 기분이 새로웠다.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자기소개서를 한 번 봐줄 수 있느냐는 연락이 왔다. 딱히 자신 있는 분야는 아니었지만,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다. 피드백을 전송해주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다. 이렇게 틀에 박힌 형식에 맞춰 나를 소개해야 한다니. 이런 형식으로 과연 자기소개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몇 년 전 썼던 자기소개서에선 어떤 사람이 보일까.

우리는 자신을 소개해야 하는 시기를 맞는다. 3000자 안에, 1분 안에, 또는 다른 틀 안에 본인을 딱딱 채워 넣기 위해 고민한다. 설명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분량이 벅차기도 할 것이다.

지난 학기에 들었던 수업에선 모든 수

강생이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했다. 교수님은 매 수업 시작 전 10~20분을 자기소개를 위한 시간으로 마련해주셨다. 학생들은 각자 5분 정도 분량의 자기소개와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정해진 형식이나 내용은 없었다. 거창하고 탄탄한 미래 계획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남들은 안 해봤을 나만의 경험을 찾아낼 필요도 없었다. 말 그대로 ‘나’를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한참을 고민하다 내가 좋아하는 장소와 오랜 습관, 최근의 관심사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다.

한 학기 동안 대략 60명의 자기소개를 들었다. 누군가는 어린 시절을, 누군가는 본인이 애정을 쏟아부은 대상을, 누군가는 최근의 고민을 이야기했다. 간절히 바라는 꿈과 계획을 당차게 밝히기도 했다. 발표의 내용은 다양했지만, 대부분 ‘이런 식의 자기소개가 처음이라 무

엇을 말해야 할지 한참 고민했다’고 말하며 시작했다.

‘나’를 소개할 기회는 생각보다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 차례 쓰고 말했던 ‘자기소개’에서는 ‘형식에 맞춰진 나’를 소개한다. 자유롭게 이야기한다지만, 그 안에서 언급해야 할 내용은 암묵적으로 정해진다. 나를 소개받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정보만 고르고 골라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정말로 나를 소개할 기회가 생기면 우리는 망설이게 된다.

지난 학기 자기소개 시간은 일주일 중 꽤 기대하는 시간이었다. 강의 시간에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었지만, 은은한 내적 친밀감이 쌓여갔다.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흥미를 알아가는 과정이 즐거웠다. 온전히 나를 소개할 기회가 조금은 더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엄선영 기획1부장 select@

종단횡단

좁혀지지 않는 0.4m의 거리

지난 호 ‘정규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 포함해야’ 기사를 쓰며 송태수 한국 고용노동교육원 교수님을 인터뷰했다. 기사에는 노동교육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로 실렸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따로 있었다. 아파트 단지의 택배 차량 지상 출입 금지 이야기였다.

최근 노약자의 안전을 고려해 단지 내 지상에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일명 ‘공원형 아파트’가 늘고 있다. 차량 통행 제한에는 당연히 택배 차량도 포함된다. 하지만 택배 차량은 지하 주차장 입구 높이가 낮아 진입이 불가능하다.

택배차 높이는 2.5m다. 우리는 매일 택배차를 마주하지만 정작 그 높이의 이유는 알지 못한다. 옆자리 친구들에게 물었더니 “물건을 많이 실으려는 게 아니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택배 차량의 높이가 2.5m인 이유는 택배 노동자들이 허리를 펴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교수님의 설명은 큰 충격이었다. 결국 노동 인식 개선 관련 기사를 쓴다던 나조차도 택배 노동자의 근무 환경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 없었던 것이다. 지하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저상 택배 차량은 노동자가 종일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은 채 일해야 한다. 반대로 2.3m인 지하 주차장의 입구 높이를 택배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최소 높이인 2.7m까지 높여 짓는 것은 건설·분양 비용의 상승을 부른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택배 노동자들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수레를 끌고 집집마다 배송할 수도 없는 일이다.

임시로 택배차의 지상 출입을 허용하거나 배달 중개원, 로봇 등을 활용해 문 앞까지 물건을 배달하는 절충안을 시행하는 아파트가 늘었다. 처음 문제가 불거진 2018년, 국토부는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

에서 2.7m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심의과정에서 지상으로 차량 출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규정 변경 전 설계 허가를 받은 단지도 2.3m 시공이 가능하다. 갈등이 계속될 것을 앞만서도 기존 높이로 주차장 건설을 강행하는 이유는 결국 비용 때문이다. 무지와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 건설사·입주민과 택배 노동자 사이의 갈등은 계속된다.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의 범위는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곳까지다. 나와 타인이 처한 상황 사이에는 언제나 0.4m의 거리가 존재한다. 이 거리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대에게 다가가려는 노력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넓혀야 하는 시야의 범위는 0.4m로 충분했다.

이가림 기자 forest@